# 연기자의 꿈을 키우고 학창시절 추억 만들고

고등학교 연극반은 연기자의 꿈을 꾸는 이들의 텃밭이다. 또 꼭 연기를 전공하지는 않더라도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광주연극협회가 주최하는 광주학생연극제는 오랫동안 바로 그 역할을 해왔다.

올해 27회를 맞은 광주학생연극제가 오는 4일부터 13일(오후 6시30분)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다. 올해 참여 연극반은 10개팀으로 역 대 최대 규모다. 학과 공부 이외에는 다 양한 문화 생활을 하기 어려운 요즘 학 교 상황을 볼 때 고무적인 현상이다. 학 생들이 자발적으로 팀을 꾸려 처음 참 여한 학교도 있고, 여러 차례 대상을 수 상한 전통의 강호도 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한국연극협회 와 광주학생연극 후원 협약을 맺은 유· 스퀘어문화관이 좋은 공연장을 무료로

## 27회 광주학생연극제 4~13일 금호아트홀 역대최대 10개 팀 참여 대상 팀 전국대회 출전

대관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는 점은 의미있는 행보다. 궁동예술극 장 등 작은 규모 소극장에서 경연하던 데서 벗어나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진 무대에 서는 건 학생 배우들에게도 기 억에 남는 일이다.

경연에 참가한 작품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들도 있고,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등 고전 작품들도 있다.

첫 경연 팀은 장덕고등학교다. 고등학생 상진과 주희가 연극 '로미오와 줄리 엣' 연극을 준비하며 겪게 되는 이야기

를 그린 '데스데이'가 공연작이다. 이어 5일에는 올해 처음 학생들이 주축이 돼 팀을 꾸린 금호고 연극반이 시험을 망친 학생 두 명이 마네킹이 돼 두 명의 도둑이 벌이는 해프닝을 지켜보는 '마술가게'를 무대에 올리며 6일에는 전남고가 '대왕은 죽기를 거부했다'를 공연한다.

그밖에 참가팀은 다음과 같다. ▲7일 =비밀의 소년(빛고을고등학교) ▲8일 =파수꾼(살레시오고등학교) ▲9일= 사람향기(운남고) ▲10일=우리읍내(전남여고)▲11일=한여름밤의 꿈(성 덕고) ▲12일=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동신여고) ▲우아한 거짓말(전 남여상)

대상 수상팀은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학생연극대회에 광주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문의 062-360-84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광주 출신 한국 무용가 김민종씨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무용 부문 장원



광주 출신 한국 무용가 김민종(25·경희대 대학원·사진)씨가 제42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무용 부문에서 장원을 수상했다.

30일 전주한옥마을 경기전에서 막을 내린 이번 경연에서 김씨는 '승무'를 선보여 영예 를 안았다.

16살 때 '고(故) 한진옥류 호남검무' 보존 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자연씨를 만나 무용에 입문한 김 씨는 국 립전통예술고를 거쳐 경희대에서 수학했다.

또 임방울국악제 전국대회 최우수상(2010), 제41회 동아무용 콩쿠르 일반부 전통부문 은상(2011) 등을 수상했다.

심씨는 "부모님의 뒷바라지와 스승의 지도에 감사하다"며 "더욱 열심히 공부해 한발 한발 성장해 가고 한국 무용의 발전을 위해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双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빛고을실내악 페스티벌 정기연주회



빛고을실내악 페스티벌 제10회 정기연주 회가 오는 6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 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빛고을페스티벌 앙상블(음악감독 양진· 사진)이 참여하는 이번 공연은 피아노, 트럼 펫 등이 어우러진 7중주곡 훔멜의 '군대'를 시작으로 소프라노 이승희, 테너 윤승환씨가

드보르작의 오페라 '루실카' 중 'Song to the Moon', 푸치니의 '라 보엠' 중 '오 귀여운 처녀'를 부른다. 또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멘델스존의 '현악 8중주 작품 번호 20'을 들려준다.

플루티스트 양진, 피아니스트 정소윤·남선영·이유정, 첼리스트 김민수·김주영·양신애, 바이올리니스트 문종아·김재은·채송화·이보라씨 등이 출연한다. 10여년 전 창단된 모이즈 플루트 앙상블이 모태가 된 (사)빛고을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했다. 문의010-2422-503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 콘서트

8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빨간 구두 아가씨' 등 들려줘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 콘서트가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문예회관이 기획한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프로그램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아티스트로 꼽히는 말로는 경희대를 거쳐 재즈 명문 버클리 음대에서 수학했으며 보컬리스트 뿐 아니라 작곡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6년 귀국후 첫 앨범 'Shade Of Blue'를 시작으로 한국 적 재즈를 선보인 '벚꽃지다', '지금 너에게로' 등 다양한 음반 으 바매해다

이번 공연에서는 한국 대중가요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한 앨범 '동백 아가씨' 수록곡 '빨간 구두 아가씨', '서울야곡'을 비롯해 '어머니 우시네', '진달래', 'Nobody knows', 'Devil maycare' 등을 들려준다.

이후 첼리스트 송영훈(7월26일), 반도네온 연주자 고상지 (8월31일), 그랑기타 퀸텟(9월21일), 컨템포러리 뮤직그룹 SOULEUM(10월11일), 클래식 렉처 콘서트 '하루키,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나다'(11월29일)가 예정돼 있다. 티켓 가격 2만원(회원 30% 할인), 청소년 1만원(50% 할인)이다. 문의 062-613-83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청아~ 너는 어찌하여 인당수에 몸을 던졌느냐?

## 국립남도국악원 3·4일

#### '작은 창극-심청아' 공연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의 희생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심청가를 새롭게 해석한 '작은 창극-심청아'(사진)가 관 객들을 찾아온다. 진도에 위치한 국립 남도국악원이 '금요국악 공감' 공연(3 일 오후 7시, 4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 악원 진악당)으로 준비한 공연이다.

이번 작품에는 명창 안숙선씨가 참여 했다. 그녀는 음악감독과 창극 지도, 작 창을 비롯, 도창도 맡아 극을 이끄는 길 라잡이 역할을 한다.

작품은 곽씨부인이 심청을 잉태하는 장면인 '해(日)' 부분을 시작으로, 젖동 냥을 하며 심청을 키우는 심봉사 모습 을 그린 '달(月)'을 비롯해 '물(水)', '뫼 (山)', '사람(人)' 등 다섯 마당으로 구성



대 있다

대본과 연출은 지기학씨가 맡았으며 심청 역의 박경민, 심봉사 역의 김대일 씨를 비롯해 유미리, 조정희, 정민영씨 등이 출연한다. 국립국악원 국악연주 단과 함께 이여진·김충현·김보미·김태 정씨 등이 함께한다.

금요 국악공연을 위해 진도읍사무소 앞에서 무료 버스(오후 6시20분 출발) 를 운행한다.

문의 061-540-4033.

문의 001-340-40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한국작가회의, 제22회 전국 고교생백일장 개최

#### 25일 경희대학교 '크라운관'

한국작가회의(이사장 최원식)는 오는 25일(오전 10시) 경희대학교 '크라운 관'에서 제22회 전국 고교생백일장을 개최한다.

올해 22회째를 맞는 전국 고교생백일 장은 해마다 전국에서 1000여 명의 학 생 및 지도교사가 참가해 글 솜씨를 겨 루는 국내 최고의 고교 백일장이다. 참 가를 원하는 학생은 20일까지 시, 산문 부문별로 접수(www.hanjak.or.kr)하 면 되고, 시제는 행사 당일 오전 10시 30분 현장에서 발표된다.

이번 백일장에서는 안도현 시인, 김미월 소설가의 특강도 열린다. 한국문학에서 분명한 자기 색깔과 서정을 구축한두 작가는 문학을 하게 된 계기, 소소한일상을 글로 표현하는 방법 등에 대해들려줄 예정이다. 문의 02-313-1486

들더돌 에겡이다. 눈의 02-313-1466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